

위암 환자의 수술 이환율과 사망률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

박도중, 이혁준, 양한광, 이진욱, 최국진

(목적) 위암 수술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이며 그 동안 많은 기술적 발전이 있어왔다. 이에 저자들은 위암수술의 절제범위 및 재건술에 따른 수술 이환율과 사망률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.

(대상 및 방법)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외과에서 위암으로 수술 받은 71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이환율과 사망률을 조사하였다.

(결과) 남녀 비는 2.2:1이었고 평균 연령은 57.4 ± 12.3 세였다. 조기위암이 42.7%였고 병기별로 각각 I기가 52.8%, II기 16.0%, III기 13.7%, 그리고 IV기가 17.5%였다. 위아전절제술 및 위-십이지장 문합술 또는 위-공장 문합술이 433예(58.4%)이고 위전절제술 및 Roux-en-Y 식도-공장 문합술이 156예(27.4%)를 차지하였다. 근치적 위절제술에서 절제된 림프절의 수는 병기가 높을수록 많았다($p < 0.001$). 수술 후 합병증으로는 수술 자체로 인한 합병증(문합부 문제, 장마비, 출혈, 액체저류, 창상감염, 장-피부 누공, 담도루 및 체루 등)이 114예(15.9%)였고 일반적인 합병증(폐렴, 흉수, 비뇨기 증상, 부정맥, 간기능 이상, 갑상샘 위기, 후두부종, 원인 모를 발열 등)이 27예(3.8%)로 총 125예(17.4%)였다. 수술 후 사망은 4예(0.5%)에서 있었다. 평균 재원기간은 12.8 ± 8.1 일이었다. 연령이 더 높을수록($p < 0.001$), 남자에서($p = 0.049$), 다른 장기를 같이 절제 하였을 때(합병 절제 35.0% vs. 비합병 절제 15.2%, $p < 0.001$), 그리고 위전절제술에서 위아전절제술보다(위전절제술 20.4% vs. 위아전절제술 13.3%, $p = 0.036$) 합병증이 더 많았다. 합병증에 대하여 수술 적 치료는 3예(2.4%)에서 있었는데 유착성 장폐색 2예와 복강내 출혈 1예였다. 위아전절제술 후 재건술에 따른 이환율의 차이를 보였는데 위-공장 문합술(238예)이 위-십이지장 문합술(182예)보다 이환율이 높았다(위-공장 문합술 18.1% vs. 위-십이지장 문합술 9.9%, $p = 0.02$). 위전절제술 후에는 모두 Roux-en-Y 식도-공장 문합을 하였고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식도-공장 문합부 누출은 1예도 발생하지 않았다.

(결론) 위암환자의 수술 후 합병증은 위아전절제술보다 위전절제술에서, 그리고 다른 장기를 같이 절제할 때 더 많았지만 전반적인 수술 이환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대개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었다.